

## 진로와 직업 주제 탐구 보고서

학번: 3112 이름: 송정아

**주제:**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가?

**주제 선정 동기:** 현재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단순 도구의 용도가 아닌 정서적 교감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탐구해 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탐구 내용:** 인공지능(AI)과의 정서적 교감이란, 인간이 AI와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AI 챗봇이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노인 돌봄 및 건강 관리 분야이다. AI 돌봄 로봇이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되어, 식사 및 복약 알림, 건강 체크, 응급 상황 자동 신고 기능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정신 건강 관리 분야이다. AI 기반 소셜 챗봇과의 대화가 외로움과 사회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는 AI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은 청소년 상담 및 교육 분야이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AI와의 대화를 통해 고민을 상담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AI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가 인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최근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AI 챗봇의 말투, 성격, 대답 등을 미리 설정한 후 대화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AI 챗봇에게 무조건적인 공감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위안을 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오히려 현실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AI 챗봇에만 의존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AI와의 정서적 교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은 앞으로 노인 돌봄, 정신 건강 관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단절, 사회적 고립, 감정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AI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하며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배우고 느낀 점:** 이번 탐구를 통해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이 실제로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와 감정적 반응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맹신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